로컬플러스

군산시-하늘에너지 군산공장 신설투자 협약 체결

군산시와 ㈜하늘에너지(대표 김민규)가 6일 군산임피산업단지 내 군산공장 신설투자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하늘에너지는 2012년 개정면에 회사를 설립해 에너지 관련 기계와 전기온풍기 제조 등 탄소 발열체 소재 및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완제품 생산기업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하늘에너지는 2017년 임피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아 150억원을 신규투자해 전기용 탄소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90여명의 지역내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최근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시점에 신규 투자를 결정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건실한 기업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져 반갑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주거복지사업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군산시가 6일 열린 '2016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기초자치단체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하는 행사로, 주거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정부기관, 지자체, LH, SH 등 각 개발공사와 NGO단체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나누는 자리다.

군산시는 주거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상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생 수료식 개최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6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2016 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2016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생들은 지난 4월 과정을 시작하고 이번 수료식을 통해 연수교육을 마치고 관련된 직장으로 취업을 진출할 예정이다.

2016년 아카데미 연수생 총 70명중 20여명은 조기취업을 달성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나친 스펙 쌓기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복지 선진도시로 '우뚝'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3개 부문 우수자치단체 선정 쾌거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3개 부문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복지사업 평가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총 9천만원을 수상했다.

수상분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부문에서 대상(5천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최우수상(2천만원), '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상(2천만원) 3관왕으로 선정되어 명실 공히 전국 지자체중 복지 선진도시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한 각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수준을 가늠하고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16년을 복지허브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정헌율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복지 및 조직부서간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6월부터 삼성동 외 9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해 전담공무원,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 뉴딜일자리 민간인력 등 복지인력을 확충 및 조정하고 민간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근 지자체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맞춤형복지 기반조성 부문에서 전국 최고라는 평가와 함께 지역복지사업 평가 이래 최초의 '대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최근 2년간의 희망복지지원사업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희망복지지원단은 『찾아가는 상담으로 복지체감도 UP』이라는 슬로건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시장과 함께하는 Solution위원회 운영, 사례관리대상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연계등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작년에 이어 우수상을 수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복지도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배려로 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로 희망을 주는 공동체, 가족기능 강화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라는 3가지 전략목표 및 62개 세부사업을 성실히 추진한 결과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전국 제일의 복지 선진 도시로서 시민중심의 감동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복지허브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수송동 한 아파트 외벽재 도장공사 시공비 높게 책정

주민대표 비상대책위 마찰 주민 불편 초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 외벽재 도장공사와 관련, 시공비가 높게 책정 됐다며 주민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간 마찰을 빚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 된지 15년이 된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대표회의를 통해 외벽재도장공사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A업체와 4억5500만원에 공사계약 후 외벽재도장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일반페인트공사의 경우 3억5000만원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특수공법(PA-100)이라는 명목으로 공사비가 높게 책정됐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측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자들과 공청을 하지 않았고 특수공법에 대한 제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채 높은 금액의 공사를 진행 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 해임안을 작성하는 등 이 아파트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대표회의 측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계약된 A업체 간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를 중단했으나 이로 인해 법적분쟁마저 일고 있다.

공사를 진행 중인 A업체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대표회의측은 "15년 이상된 노후 건물은 균열등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원료가 섞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자문에 받아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 그중 가장 저렴하고 신뢰도가 높은 업체와 계약했다"면서 "10여년 전 아파트 분양 당시 마감처리가 단순한 페인트칠로 되어 벗겨지고 균열이 심해 700여명의 의견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줄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로 시작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의 12월 첫 기부 실천은 ㈜신영목재(대표 김종환)의 기부로 시작됐다.

㈜신영목재는 2003년부터 14년째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군산시자율방범대연합회(회장 장병훈)도 각 지대별로 십시일반 모은 쌀 10kg 70포(14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앞서 지난 5일 임피면 소재 술산초등학교(교장 고기선) 6학년 학생들은 그림그리기대회 시상금과 폐지를 모아 마련한 수익금 22만원을 임피면사무소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술산초등학교 남이삭 학생은 "적은 금액이지만 학급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온 시민에게 전해져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한국의경영대상

하림, 경영품질종합대상 수상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이 주관하는 '2016 한국의경영대상'에서 경영품질종합대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하림은 전사적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경영의 품질에서 탁월함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86년 ㈜하림식품으로 출발해 국내 닭고기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 ㈜하림은 품질과 위생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림의 전문적인 기술과 최적화된 프로그램, 임직원의 정성으로 한결같이 신선하고 위생적인 닭고기가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2014년 국내 축산물 최초로 미국에 자사 삼계탕 수출에 성공한 ㈜하림은 올해 중국까지 진출함으로써, 한식 세계화의 양대 교두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

㈜하림의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100여 개 농가로부터 건강한 병아리를 선별해 마늘과 호유실 등의 기능성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닭고기로, 국내 축산물 최초로 사료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공정이 안전관리통합인증(HACCP)을 받으며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사육농가 인증번호를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하림의 이문용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관내 해역에 해삼 210만 마리 방류

군산시가 7일 비안도·관리도 해역에 해삼 종묘 약 210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번 사업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지속적인 어업 기반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전략품목 방류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 무녀도, 관리도, 말도 및 개야도 해역에 조피볼락, 감성돔 종묘 9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지난달에는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인 전복 종패 190만 마리를 명도, 무녀도, 선유도, 신시도에 방류해 지역 어업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관내 해역의 다양한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한 우량종묘인 대하, 전복, 꽃게, 붕어, 참게 등 150만 마리를 무상 방류하는 등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류해역에 대한 치어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어업인들의 지도·홍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불법어구 철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처리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과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준수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 수출확대를 위한 해삼양식 단지 조성 및 인공어초(투석) 시설 설치 등 어패류 서식 공간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